

# “온정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 전개해 나갈 것”

###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 건강한 여름나기 성품기탁

한국서부발전(주)군산발전본부(본부장 황해석)가 무더위에 취약한 저소득 가정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주)군산발전본부가 무더위에 취약한 저소득 가정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500만원 상당의 여름용품들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황해석 본부장은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고생하는 저소득 가정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는데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되어 무더위에 취약한 저소득 가정이 몸과 마음 모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름나기 성품을 후원한 한국서부발전(주)군산발전본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주)는 국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으로 양질의 전력



한국서부발전(주)군산발전본부가 무더위에 취약한 저소득 가정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500만원 상당의 여름용품을 기탁했다.

을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공익까지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다양한 사회공

/군산=김정훈 기자

### 남원경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남원경찰서가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오후에는 도봉동 회의실을 찾아 통장 50여명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운창호법)에 관해 소개하며,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 대상인 불법주정차 문제와 관련해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어플을 소개했다.

한편,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 “앞으로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소방서, 송동중서 심폐소생술 교육

남원소방서는 지난 10일 송동면의 송동중 전교생 14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구성 및 사용법 이론교육과 사용법 실습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작년에 교육받은 후로 처음 실습해보는 거라 긴장했지만, 다시 해보니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 심정지 환자를 보면 자신 있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기업 롯데주류, 군산시에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지역기업 롯데주류가 군산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강임준 시장과 롯데주류 박찬휴 군산공장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금 1천500만원 기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 박찬휴 군산공장장은 “군산 시민들의 롯데주류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보답하는 뜻에서 1999년부터 매년 장학기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지역사회와 국가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군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지난 20여년 간 군산 지역의 교육발전에 든든한 후원자로서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군산지역을 대표하는 항토기업의 하나인 롯데주류가 더욱더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주류 군산공장은 1945년에 설립, 지역과 함께 해 온 항토기업으로 우리나라 대표 청주 ‘백화수복’과 ‘청하’는 물론 소주 처음처럼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 후원 라벨을 이용해 벚꽃이삭 선발대회, 군산 풍담보리축제 등 지역행사 홍보, 하천정화활동과 환경보존활동 및 노후주택 고쳐주기, 헌혈 캠페인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문화공간 기린미술관, 소장 작품전 8월 18일까지

문화공간 기린(관장 이현옥)에서는 오는 8월 18일까지 두 번째 미술관 소장 작품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동양의 피카소’라 불리는 고 하반영 작가의 작품 7점을 비롯해 홍순무 작가의 1950년도 작품 ‘좌상’과 2015년도 ‘농악’, 군산대학교 미술대학 김정숙 교수의 ‘천년한지, 달빛에 물들다’에 소개된 작품과 예원예술대학교 미술조형과 이철규 교수의 금을 소재로 한 ‘Gold story-fortune’ ‘상생-함’, 유휴열, 이적오 그리고 기린미술관 이현옥관장의 작품 등 서양화와 한국화 41점이 전시된다. 한편,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로 무료다. 단, 월요일은 휴관이다. /장은성 기자

### 기린미술관, ‘미술세계의 이해와 체험 사랑방’ 운영

문화공간 기린(관장 이현옥)에서는 전라북도 관공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미술세계의 이해와 체험 사랑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지역 미술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어렵게만 생각되는 미술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11일에는 서양화가 임택준 작가를 초청해 ‘팝아트와 그려보기’를 진행했다.

임택준 작가는 원광대학교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중국 국제관화전 초대작가 선정, 설악국제비엔날레 초대작가, 전주국제영화제 퍼포먼스, 미디어 아카이브전 등 다수기획전 및 행위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본 프로그램은 지난 6월 13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되며, 강의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다.

장소는 기린미술관 세미나실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 익산소방서, ‘여름철 차량 화재’ 주의 당부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최근 기온상승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차량화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익산 용제동에서도 원인미상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올해 6월부터 최근 10일까지 익산 관내에도 엔진과열, 엔진오일 누출, 원인미상 등으로 인한 총 9건의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여 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엔진, 뜨거운 공기에 갇혀 90°C에 육박하는 실내, 그리고 자동차는 휘발유·LPG·경유 등 발화하기 쉬운 연료를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항상 화재에 노출되어 있다.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운행 전 연료 누출 여부 및 계기판 상의 엔진 온도 게이지 확인 ▲차량 내에 폭발할 수 있는 라이터 또는 부탄 가스 등을 차량에 놓지 않기 등을 실행해야 한다. 만일 차량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정차 후 시동을 끄고 하차해 30m 이상 떨어진 뒤 즉시 119로 신고해야 된다.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무더운 여름에는 차량 엔진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정기적인 차량점검과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